



현관을 들어서서 순간 '와' 하는 감탄의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밝게 웃고 있는 옛날 옛적의 가족을 표현한 인형작품, 6개의 새 동지, 개구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예쁜 수족관. 그리고 도무지 어른들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을 기상천외한 작품(가들, 억지를 부려서라도 여기서 '작은 불국토'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버스에서 어린아이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뛰어온다. 발걸음을 멈추기도 전에 선생님들께 할 장인사한 아이들은 마치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 자신들의 교실로 다시 된다. 조용하던 어린이집은 갑자기 활기에 넘친다.



◇속초 반야어린이집 보리수반 어린이들은 오는 8월 열리는 만해축전 음성공양을 위해 찬불가를 배우고 있다.

## 천진불들 놀이터... "여기는 작은 불국토"

### 신흥사복지원 반야어린이집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은 강한 속초시 영랑호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신흥사복지원 반야어린이집(원장 이명우). 이곳은 밝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 상쾌한 불 향기,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곳곳에 스며 있는 자비동산이다.

"말이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해야 한다는 이명우 원장은 "신흥사 속초포교당 원각사와 함께 자리한 이곳은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300여 평의 넓은 마당과 교실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최적의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속초지역 육아를 위해 신흥사가 영랑동에 반야어린이집을 설립한 것은 지난 96년. 4살부터 7살까지 취학 전 어린이 277명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곳에서 뛰어난다. 하지만 맞벌이부부들을 배려해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문을 열어 둔다. 인구 9만 여명의 속초지역에는 약 8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다. 이 가운데 원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반야어린이집. 5년 동안 1190명이 이곳을 거쳐 갔을 정도다.

그렇다면 속초지역 부모들이 반야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아이들 또한 졸업할 때까지 반야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불에 짝인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는 다른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교육이 약기를 다루고, 그림을 잘 그리는 등 특별한 능력을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가기 전에 수·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반야어린이집의 교육철학이다.

보리수반(7세) 이재숙(엄무주임) 교사는 "인간됨의 기초가 다져지는 유아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습관이나 사고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인간다움을 잘 다져 주어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고 말했다. 또 난초반(4세) 황수경 교사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태도가 어린 시기에 모두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 교육프로그램을 어른들의 잣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인지 반야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한다. 아이들을 통해 보려는 질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요구, 느낌, 입장을 항상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반야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등 20명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돼서, 내가 알아야 할

#### 277명의 새싹불자

뛰어놀고 공부하고

얼굴마다 해맑은 표정

민속놀이·예절학습 등

잠재력 키우기 교육

타 유치원과 차별화

삼의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자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인지 반야어린이집의 1년간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시키고 인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씨앗심기, 봄 동산 견학, 민속놀이, 요리 실습, 기차 여행, 예절 교육, 감정 담그기, 노인

요양원 방문, 해양경찰서 합창 견학, 반야가족 그림그리기 대회, 비행장 견학, 시장놀이 등. 또한 반야어린이집이 사찰에서 운영하는 만큼 불제자다운 품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프로그램과 가정·어린이집 생활을 연계하기 위한 부모교육강좌, 학부모 상담 등도 운영하고 있다.

보리수반 원생들은 요즘 오는 8월 6일부터 4일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음성공양을 위해 찬불가 연습에 한창이다. 이번 만해축전에서는 지난 5월 22일 개최한 '반야가족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입선한 작품 51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난초, 연꽃, 보리수 등 나이별로 12개 반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이 목탁을 들고 '이게 뭐예요'하고 묻자, 보리수반 한영석(7세) 어린이는 '스님들이 집에서 부처님께 인사할 때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이에요' '노래할 때 쓰는 거예요'라고 제각각 대답한다. 아이들에게 반야어린이집은 공부만하는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상상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천진불들의 놀이터다.

속초=김준근 기자 jgarn@buddhapa.com

반야어린이집  
이명우 원장

#### "지혜로운 사람 키워야죠"

"어린이 마음은 곧 부처님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의 마음을 색을 칠한 대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어린이에 맞추는 교육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96년 반야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명우(50) 씨는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지난 77년 제1회 MBC대학교요제에서 '가시리'로 은상을 수상했던 가수. 그는 수상 이후 두 번이나 음반을 내는 등 가수로서의 앞날도 밝았지만, 고등학교 때 꿈인 '교육자'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2년 여 간의 가수생활을 마감하고 서울 성남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다.

"원만한 불서를 대부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님들과 만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12년간의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불교어린이집 원장이 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치 아니겠습니까." 그는 속초에 동지를 펼치기 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오후나 저녁에는 지역 불교계의 행사에 참석해 찬불가 음성공양으로 포교와 신행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린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터득한 비법이 '섬세한 관심과 노력'이라는 이 원장은, 부모들에게 시간을 많이 가질 것, 여행을 자주 할 것, 책을 많이 읽어 줄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12월 19일 개최한 반야가족 한마음 축제에서 역할극을 하는 교사들.



◇정심 공양에 앞서 두 손을 모으고 공양계를 하는 반야 어린이들.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비파나무잎죽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조용한 마을에 비명이 터지면서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장씨네 집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 갔대." 장 씨 부부는 점봉은 물이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뛰어어들었지만 손을 방도가 없었다. 밤을 구르며 애타게 아이를 부를 뿐이었다. 결국 아이의 엄

마는 혼절했고 아버지는 마을 장정들과 함께 떠내려가는 아이를 강 하구를 향해 뛰고 있었다. 강 백사장에서 시간가는 줄을 모르고 놀던 장 씨네 아이는 그만 급하게 불어날 물결에 휩쓸린 것이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다성으로 유명한 초의 선사다. 마을 사람들은 설령 아이를 건진다

### 위열 구토·땀폭질에 효능

해도 산 목숨이 간신히 버텼다고 혀를 찼다. 바로 그때, 강 건너에서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향해 뛰어올랐다. 능숙한 솜씨로 물살을 헤치며, 아이를 한쪽 팔에 안고 강을 건너왔다. 그는 바로 대흥사로 가던 스님이였다. 아이는 축 늘어져 이미 싸늘하게 식은 송장같이 보였다. 스님이 아이의 온몸을 두 손으로 비비며 기를 회생시켜주자, 아이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음을 터뜨렸다. 마을 사람과 장 씨 부부는 비로소 환호성을 지르며 아이를 얼싸 안았다. "스님, 고

맙습니다." "아이가 크게 놀랐을 터이니 비파나무 잎에 술을 조금 넣어 미음을 부어 먹이면 정신이 안정될 것이요." 초의 선사는 15세에 출가해서도 물에 빠져 생사의 관문에 섰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더 수행에 매진했다. 이런 인연으로 선사는 많은 차중에서 비파나무 잎차와 비파나무 잎으로 만든 죽을 특히 중히 여겼다고 한다. ■ 약선식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비파나무 잎 10g, 현미찰쌀 100g, 볶은 소금  
요리법 ① 비파나무 잎을 가늘게 찢어 거름망에 써서 냄비에 넣어 물을 붓고 30분간 끓인다. ② 끓는 물에 불린 현미찰쌀과 적당량의 물을 부어 죽을 끓인 뒤 소금으로 간한다. ③ 배합과 위의 기능 조절, 기(氣)를 소용시키고 가래를 없앤다. 효능 ① 위열로 구토, 땀폭질하는 증세에 효능이 있다. ② 비파나무 잎은 서리 맞은 것을 쓰되, 털을 없애고 감초 물로 씻거나 생강즙으로 끓인다.